담양뉴스
DAMYANG NEWS

담양출신 애국지사 '고하 송진우' 기념행사

장광호 편집국장 승인 2026.04.27 11:33

탄신 136주년 및 서거 81주기 추모식 개최
5월 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탄신 135주년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2025년 5월8일)

담양출신 항일 애국지사 고하 송진우 선생(1890~1945) 탄신 136주년과 서거 81주기 추모식이 오는 5월 8일 오후3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이날 추모식은 (재)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국가보훈부,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열린다.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일을 맞아 기념사업회는 해마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독립

유공자 묘역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올해 추모식은 개식, 국민의례, 약전봉독(정전택 전.고려대학교총장), 추모식사(현병철 기념사업회 이사), 추모사(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유홍림 서울대학교총장), 기념강연, 헌화·분향, 조총발사 및 묵념,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강연은 '고하 송진우 선생의 역사의식과 여성관'을 주제로 남희숙 서울대학교 초빙교수(전.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가 강연에 나선다.

고하 송진우 선생은 1890년 담양 금성면 대곡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고향마을에서 보냈으며 1908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수학한 뒤 귀국, 1919년 서울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 이후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의 탄압속에서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국민계몽운동, 마라톤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등을 일으켜 일제의 탄압을 받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건국을 위해 진력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서거했다.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한편, 선생의 고향인 담양 금성면 대곡마을에 복원된 생가(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와 기념관, 담양읍 관어공원에 추모비, 담양공고 앞 쌈지공원에 추모시비가 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